



## 최근 강달러, 저유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아름 연구원

■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달러화 강세와 유가 하락 지속이 세계 경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

- 최근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대조적으로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며 달러화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속적인 달러화 강세로 인해 원유를 비롯한 식료품과 금속 등의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함.
- 달러화 강세와 원자재 가격 약세로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그 외 국가 경제의 차별적인 경제 회복세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달러에 대한 유로화와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주요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14년 12월 4일 기준 유로화는 1.24달러로 2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엔화도 120엔을 기록하며 2007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함.
- 달러화 가치가 오름세를 보이며 아시아에서 환율전쟁 조짐도 나타나고 있음.
  - 2014년 10월 일본중앙은행(BOJ)이 양적완화를 발표함에 따라 엔화 가치가 급락함.
-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2015년에도 달러화 강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미국 연준(Fed)은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므로 달러화가 금융시장에 타격을 미칠 정도로 급속도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에너지 부문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어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최근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유가는 2014년 6월 중순보다 약 40% 하락함.
- 시장 전문가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 결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가는 하락하고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함.
  - 2015년 브렌트유(brent crude oil) 평균 가격은 배럴당 77달러로 하향되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배럴당 72달러로 하향 전망됨.
-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급속한 유가 하락으로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유사한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함.<sup>1)</sup>

■ 이와 같은 달러화 강세와 유가 하락으로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 효과는 감소하며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 대부분 상품이 미국 달러화로 거래됨에 따라 달러화 강세에 따른 미국 외 국가의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이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상품 구매력과 경제 성장세가 둔화됨.
-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와 함께, 유럽중앙은행(ECB)은 2014년 6월과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마이너스 금리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나, 유가 하락으로 통화정책 효과는 감소함.
  - BOJ와 ECB의 통화 정책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유가 하락이 소비자물가 하방 압력을 가함.

■ 달러화 강세와 원자재 약세가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2014년 신흥국 시장의 환율 실질 가치가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상승도 억제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연준은 2015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1997년 3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여 외환위기가 촉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던 글로벌 자금이 미국 자산시장으로 유출되었고, 이에 따라 달러화에 고정된 신흥국 시장 환율은 변동성이 확대됨.

(WSJ, FT 등)

1) 1997년 7월 태국의 통화가치 절하로 우리나라 원화, 인도네시아 루피아, 러시아 루블화, 브라질 헤알화 등의 가치가 하락하며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함.